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6호 【루계 제25499호】 주제 105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중장 박정철 동지와 포병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새년도 전무정치훈련에 진입한 때로부터 지난 20일 동안 포병부대들이 진행한 포병집중훈련실적을 료해하시고 전군이 훈련열, 경쟁열로 더욱 세차게 끌어받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들의 포사격경기를 조직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기에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에서 선발된 방사포병중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 대련합부대별 포사격순차에 따라 대기전에서 50m의 거리를 이동하여 강평원이 지적하는 목표에 1개 포로 시사를 하고 중대의 모든 포들이 일제사격을 한 다음 은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결과와 순위는 원목표를 맞힌 포탄의 발수와 화력임무수행시간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사격경기 진행형식과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일당백포병들은 화력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신속히 포진지로 이동하여 번개같이



화,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훈련혁명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포병들을 한층 금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켜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원수들의 침수리에 명중탄만을 박는 백발백중의 명포수, 일당백포병대렬을 늘여나갈데 대한 문제 등 포병무력강화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올해는 일당백포병들이 율리는 포성으로 새해의 첫 대문을 열었고 현재의 마감을 장식한다고, 지휘관들과 포병들은 포병싸움준비완성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는 당의 의도를 잘 알고 지는데, 뜨는 발을 훈련장에서 맞고 보냄으로써 일당백포병의 명중포화로 남침의 길을 열고 전승의 경축포성을 높이 울리자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8군단판하 방사포병중대가 1등, 제3군단판하 방사포병중대가 2등, 제7군단판하 방사포병중대가 3등을 쟁취하였다.

사격경기에서 높은 성적을 정취한 조선인민군 제8군단, 제3군단, 제10군단, 제9군단판하 방사포병중대들에 명포수상장과 명포수메달, 명포수휘장이 수여되었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사격경기참가자들은 정초부터 한해의 마지막까지 끊임없는 선군혁명병도의 강령군길을 이어가며 일당백포병들이 열적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감사의 인사불사가 드리면서 훈련장에 총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뜻깊은 2017년을 포병싸움준비완성의 자랑스런 성과로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포탄을 장탄하고 목표물 조준경안에 걸어 넣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포병들의 화력부무동작을 바라보시면서 훈련을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강도높게 벌린것이 알린다고, 포병들은 실전과 같은 정황들을 조성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명중포탄을 날릴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격구멍이 내리자 경기참가자들은 적진을 일격에 불바다로 만들 원추격멸의 의지를 안고 명중포성을 울렸다.

천지를 진감하는 요란한 폭음과 타래쳐 오르는 흙먼지, 훑날리는 포연속에 번개불과 같은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기를 헤가르며 날아갔고 타격목표에는 불소나기가 들쳐올랐다.

열적의 포신들에서 뿜어져나가는 포탄들은 위대한 수명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일병장상에 모시려던 념원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명도따라 기어 이르고야말 일당백포병들의 심장에서 리져나오는 강렬한 열망의 불줄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명중이라고, 포탄에 눈이 달린것 같다고, 포병들이 정말 포를 잘 쏜다고, 모두가 저격수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기참가자들은 평시훈련을 통하여 일당백으로 다져온 열적의 포사격술로 명중포성을 울림으로써 원수들이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고 달려온다면 씨도 없이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백두산혁명군들의 열적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가 성과

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진행한 포사격경기는 포병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사격의 명중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달려진 전투임무와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신속히 기동전개하고 정확한 사격체원준비완성과 명중사격을 할수 있도록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는것을 제길화한다면 언제 어느때 명령이 내리도 명중포성만을 울릴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훈련에 대한 립장과 관점이 조국통일대전을 대하는 립장과 관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담이 제시한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문제, 훈련에서 당정책화, 실천화, 현대화, 과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길영조영웅추격기련대 전투비행사들의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길영조영웅추격기련대 전투비행사들의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야간에 불의출동에 의한 추격기들의 지상대상물습격훈련을 통하여 항공군인의 모든 부대들이 실전에 접근한 실용적훈련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전투비행사들을 적들의 그 어떤 대상물도 무사비하게 격멸소탕할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해 길영조영웅추격기련대에 불의에 명령을 하달하시고 현지에서 전투능력을 직접 판정검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특근상장 리영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병철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인 항공군상장 김광혁동지와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류장에 나가시어 추격기들의 출격준비상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12월의 하늘가에 울려 퍼질 붉은 매들의 폭음소리를 생각하니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전투비행사들을 위해 마음쓰시며 사랑의 유혹교시를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오른다고, 전투비행사들이 날오는 항로는 장군님 가까이로



언제나 맑고 푸를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격에 겨워 눈굽을 적시는 전투비행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담대한 심장이 없인 도저히 수행할수 없는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에서 발휘한 전투비행사들의 불굴의 정신은 전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재부라고, 이런 훌륭한 비행사들을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체 비행사들과 군인들, 군인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가는 길,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울처럼 간직하는 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시소에 오르시어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진행과도를 보시면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으로부터 결심보고를 청취하시시고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지심을 구르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련전 불꽃기를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편속 날아온 추격기들이 순식간에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정해주시신 항로를 따라 열적의 비행운을 새기며 정확하게 날오는 추격기들의 비행항로가 영상표시장치에 현시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둠속에서도 추격기들이 정확히 날고있는가를 손금보듯 볼수 있다고, 전투비행사들이 비행체제유지를 잘한다고, 비행지휘

의 과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고 분내 기뻐하시였다.

드디어 추격기들이 순차적으로 목표상공에 도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명령이라면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만적재하고 구름속 천리, 불길속 만리라도 뚫고나가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을 담금히 소탕해버릴 일당백불사조들의 천백배복수심이 만장약탄 은빛매들에서 폭탄들이 투하되고 목표섬에서는 화광이 충전하였으며 우뢰같은 폭음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목표물을 집타격하는 장쾌한 광경이 표시되는 영상표시장치를 보시면서 명중이라고, 야간이 아니라 대낮에 진행되는 훈련을 보는데 믿을만한 우리 당의 하늘초병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는것을 과시하였다고, 불굴의 조국수호정신, 육탄자폭정신을 지닌 하늘의 결사대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하는것이지만 조국의 명공방위는 날씨와 시간을 보아가며 하는것이 아니며 현대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되는 것만큼 오늘과 같은 훈련을 계속 진행하여 전투비행사들을 그 어떤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맡겨진 공중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유능한 전투비행사, 만능비행사로 든든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야간습격전투비행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영웅한 붉은 매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켜보시는 활주로우에 가법제, 멋들어지게 착륙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떠한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불의에 진행하였는데 믿음직한 우리 당의 하늘초병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는것을 과시하였다고, 불굴의 조국수호정신, 육탄자폭정신을 지닌 하늘의 결사대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리며 낮이나 밤이나 조국수호의 하늘길을 날고있기에 오늘과 같은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맡겨진 비행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길영조영웅추격기련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길영조영웅추격기련대의 전체 군인들은 전투비행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믿음과 정으로 끌어주고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전군의 모범으로 내세워 주신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강도높은 비행훈련을 생활화해 나감으로써 언제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백전백승의 비행운만을 아로새겨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